

# 맞벌이 가구와 홑벌이가구의 자산효과 차이 분석

Wealth Effects' Difference Analysis of Dual-income Households and Non-dual  
Income Households

윤 정 득\*

Yoon, Jung duck

---

## 目 次

---

###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 II. 선행연구 고찰

1. 자산효과의 이론적 배경
2. 선행연구 검토

### III. 실증분석

1. 분석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
2. 변수의 구성
3. 자산효과 분석모형과 분석결과

### IV. 결 론

<abstract>

<참고문헌>

---

## ABSTRACT

---

### 1. CONTENTS

#### (1) RESEARCH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examine and presenting whether there is any difference of wealth effect which dual-income households and non-dual income households held assets, set aside consumption based on income that have earned direct and indirect by the subject in private consumption, these households.

#### (2) RESEARCH METHOD

This research used the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KLIPS) of 2002 and 2012, and 1355 households of the 5th year and 15 th of the year were 3,852 dual-income households and non-dual income households. To analyze the ten-year difference in the wealth effect, the data were transformed using the logarithm function.

#### (3) RESEARCH FINDINGS

APT resident dual-income households increased consumption due to rental income

---

\*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강사, 부동산학박사, yjd660@hanmail.net

▷ 접수일(2015년 11월 30일), 수정일(1차 : 2015년 12월 15일, 2차 : 2015년 12월 18일), 게재확정일(2015년 12월 18일)

and the appreciation by investing in real estate more stable. but, non-dual income households is relatively placed emphasis on the accumulation of financial assets. On the other hand, APT non-resident dual-income households is greater the consumption resilience of financial assets by aged. and house equity and other residential real estate assets were unchanged. In addition to non-dual income households consumption increasing age contains the resilience of financial assets, house equity, residential real estate was analyzed.

## 2. RESULT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reveal that APT residence and APT non-resident dual-income households gradually to leave balances and home equity to increase the proportion of financial assets. Non-dual income households is to increase the home equity that can be expected from a stable rental income and capital gains rather than focusing on financial assets suggest.

## 3. KEY WORDS

- dual-income households, non-dual income households, Wealth effect, Housing wealth, Constant income, Consumption elasticity

---

## 국문초록

---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자료(KLIPS)를 정리하여 거주 주택의 종류(APT와 APT외)에 따른 맞벌이 가구와 홀벌이가구의 10년 전후(5차년도와 15차년도) 자산유형별 소비탄력성의 변화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 결과, APT거주 맞벌이가구는 연령이 많아질수록 금융자산의 소비탄력성은 작아진 반면에 주택자산의 소비탄력성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홀벌이가구는 연령이 많아질수록 금융자산의 소비탄력성은 커진 반면에 주택자산의 소비탄력성은 더 작아졌다. 한편, APT외 거주 맞벌이가구는 연령이 많아질수록 금융자산의 소비탄력성이 커진 반면에 주택자산과 주택외부동산자산은 변함이 없었다. 홀벌이가구도 연령이 많아질수록 금융자산, 주택자산, 주택외부동산자산의 소비탄력성은 작아졌다. 따라서 APT거주 맞벌이가구는 금융자산의 비중을 늘려 주택자산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홀벌이가구는 안정적인 운영소득과 자본이득을 기대할 수 있는 주택자산을 늘려야 함을 시사한다. APT외 거주 맞벌이가구와 홀벌이가구도 가능한 안정적인 주택자산과 주택외부동산자산에 좀 더 비중을 두어 항상소득을 통한 자산효과로 가구의 안정적인 삶과 국민경제 순환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핵심어 :** 맞벌이가구, 홀벌이가구, 자산효과, 주택자산, 항상소득, 소비탄력성

---

## I.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1962년부터 시작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고도의 경제성장을 가져왔고 국민들을 절대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였다. 우리는 과거 양적 성장에서 삶의 질적 수준 제고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경제성장은 삶의 수준을 향상시킨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인플레이션과 사교육비 증가, 주거비 상승 등으로 가구들은 생활전선으로 떠밀리는 실정이다.

실제 2011년 12월 통계청<sup>1)</sup>에서 발표한 「맞벌이가구 및 경력단절여성 통계 집계 결과」에 의하면, 2011년 6월 기준 유배우 가구 1,162만 중 507만 가구(43.6%)가 맞벌이 가구로 491만 가구(42.3%)의 홀벌이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신혼부부 2,677가구를 대상으로 한 『2014년도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 패널조사』<sup>2)</sup>에서도 37.2%가 맞벌이를 한다고 하였다. 맞벌이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택비용 마련이었다. 이와 같이 주거비용, 교육비, 육아·보육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맞벌이 가구의 소비활동은 경제성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실제, 국내 총생산(GDP)에서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60%에 이를 정도로 중요하다.<sup>3)</sup>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민간소비의 주체인 맞벌이가구와 홀벌이가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유형별 가치변동에 따른 소비의 탄력성, 즉 자산효과(wealth effect)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는 특정 세대의 일정시점 또는 특정 연령에 국한시켰던 기존 연구와 달리 유배우자로서 상승하는 주택비용의 부담과 사교육비 마련, 인플레이션에 따른 화폐가치의 하락 등 현대사회에서 변화하는 생활환경에 적응하려

는 맞벌이 가구가 홀벌이가구에 비해 어느 정도의 자산효과에 차이가 있는지 10년의 간격을 두고 살펴보았다.

### 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자산효과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은 선행연구와 국내·외 문헌들을 바탕으로 하였다. 그리고 분석대상은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에서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는 5차년도의 총1357가구(맞벌이 544가구, 홀벌이 813가구)와 15차년도의 총3,852가구(맞벌이 2481가구, 홀벌이 1371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가구들의 자산효과 차이를 실증분석하기 위해 SPSS 21.0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서론에서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을 제시하고 II장에서는 자산효과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정리하였다. 그리고 III장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한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벌이가구와 홀벌이가구의 자산효과 차이를 분석하였다. 제IV장에서는 맞벌이 가구와 홀벌이가구가 소유한 자산별 소비탄력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II. 선행연구 고찰

### 1. 자산효과에 대한 이론적 배경

자산효과는 시카고학파의 K. Brunner와 A. Meltzer에 의해 주장된 이론으로 자산을 보유하는 제약조건은 소득이 아니라 자산이 증가하면 자산효과를 통하여 소비가 증가한다는 것이다.<sup>4)</sup> 특히, 경제 분야에서 소득수준이나 희망

1) 통계청 (2011. 12. 13.). "맞벌이가구 및 경력단절여성 통계 집계 결과" 보도자료, p.3.

2) 국토교통부, 『2014년도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 패널조사』, 국토교통통계누리, <http://korealand.tistory.com/5008>에서 인출

3) 김봉호·홍성인, 경제학원론, 청목출판사, 2008, pp.460~461.

하는 소비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는 각 가구의 자산이며, 자산의 가치가 상승할수록 가구는 그들의 수입을 저축하는 대신 더욱더 소비를 하려고 한다.<sup>5)</sup>

자산효과와 관련된 소비에 관한 대표적인 이론은 Friedman(1957)의 항상소득가설과 Modigliani(1954)의 생애주기 가설이 있다. '항상소득가설'에 의하면 주택을 포함한 모든 자산의 소비성향은 자산 변화의 연금가치로 보기 때문에 이때의 소비는 당기의 절대소득이 아닌 평생 동안 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기적인 기대치로서의 항상소득에 의존한다는 것이다.<sup>6)</sup> 그리고 '생애주기 가설'에 따르면 현재의 소비는 생애를 염두에 두고 결정하며, 총소득은 자산소득( $W_t$ )과 노동소득( $L_t$ )으로 구성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소비함수식  $C_t = aW_t + bL_t$ 로 나타낼 수 있으며, 여기서 a, b는 각각 자산소득의 한계소비성향과 노동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을 나타낸다. 이 식에 의하면, 단기에는 자산소득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노동소득의 증가에 따라 소비도 증가하므로 평균소비성향(APC)은 한계소비성향(MPC)보다 크게 된다. 그러나 자산소득의 한계소비성향과 노동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이 동일한 비율이라면 장기에는 자산규모가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장기소비함수는 평균소비성향(APC)과 한계소비성향(MPC)이 일치하게 된다. 실제 한 개인의 소비는 전 생애에 걸쳐 일정하지만 소득은 중년 때 가장 높고, 유년과 노년기에는 낮다. 노년기에는 소득이 감소하므로 중년기에 모아 놓은 저축을 인출하여 소비

한다.<sup>7)</sup> 결국, 생애주기 동안의 소비수준은 평활화(smoothing)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상의 자산효과는 자산별 탄력성을 설명변수로 하고 소비의 탄력성을 종속변수로 한 소비함수로 표시되지만, 최근의 연구에서는 가구의 미시데이터를 활용하는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다양한 외생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하는 추세이다.

## 2. 선행연구 검토

거시 또는 미시 계량 분석을 통하여 자산가격의 변화가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자산효과에 관한 연구들은 미국에서 시작하여 활발히 진행되어 으며, 최근에는 국내 연구도 활발하다. 서승환(1994)<sup>8)</sup>은 지가상승에 따른 자산효과는 주로 비내구재를 중심으로 민간소비를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이후 이항용(2004)<sup>9)</sup>은 국부조사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순자산에 대한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소비탄력성이 작아진다는 것을 실증하였으며, 주택자산의 가치가 1% 증가하면 비내구재의 소비탄력성은 약 0.03~0.05% 증가함을 보여 주었다. 최요철·김은영(2007)<sup>10)</sup>은 주택가격이 소득계층별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2000년 이전에는 중간소득 이상 계층에서 유의하게 양(+)의 값을 나타냈지만 2000년 이후까지를 포함한 전 기간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모든 소비계층에서 유의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김미형(2008)<sup>11)</sup>은 전국가계평균자료와 지역별 가계자료를 분석하여 주식자산은 가계소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부동산자산은 유의성이 없음을 보여 주었다. 허문중·조정환(2013)<sup>12)</sup>은 장기 소비함수를 추정된 결과, 주택가격

4) 최은영, "주택의 자산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시계열과 횡단면분석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pp.1~30.

5) William A. Mceachern., *ECONOMICS*, A Contemporary Introduction, South Western Publishing, 1998, pp.184~186

6) 김경환·김중석, *맨큐의 경제학*, 교보문고, 2002, P.498

7) 이중희, *주택경제론*, 박영사, 2004, pp.126~127

8) 서승환, *한국부동산시장의 거시계량분석*, 홍문사, 1994, pp.35~50.

9) 이항용, "주택가격 변동과 부의 효과", 금융경제연구, 한국은행, 2004, 제181호, pp.1~30.

10) 최요철·김은영, "가계소비의 자산효과 분석과 시사점", 조사통계월보, 서울: 한국은행, 2007, 제61권 707호, pp23~53.

11) 김미형,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의 소비효과", 한국경영교육학회, 경영교육논총, 2008, 제51집, pp.25~43.

12) 허문중·조정환, "주택가격 변동의 소비에 대한 자산효과 추정 및 시사점", 금융경제분석 경제연구, 우리금융경영연구소, 2013.

이 10% 상승하면 장기적으로 가계소비도 0.3% 증가함을 확인했다.

외국의 연구로는 Benjamin et al. (2004)<sup>13)</sup>이 미국의 주(州) 단위 데이터를 이용하여 자산효과를 분석한 결과, 주택자산이 금융자산에 비해 상당한 자산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Case et al. (2005)<sup>14)</sup>은 서구 14개 국가와 미국의 미시 패널 데이터를 분석하여 주택자산의 가치가 10% 상승할 경우 소비는 각각 서구 국가는 1%, 미국은 0.4% 증가함을 보여 주었다. Campbell and Cocco (2007)<sup>15)</sup>는 주택 가치가 높아지면 예비적 저축 필요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소비증가는 주택가격 상승의 예측 가능한 구성요소와 양(+)의 상관관계를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Bostic et al. (2008)<sup>16)</sup>은 자산효과가 내구재 소비보다 총소비에 더 잘 나타난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비내구재 소비가 자산효과에 보다 민감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 Ⅲ. 실증분석

#### 1. 분석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

한국노동패널조사는 비농촌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의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 표본 구성원(5,000 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연 1회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이동, 소득활동 및 소비 등에 관하여 추적 조사하는 종단면조사(longitudinal survey)이다.

본 연구를 위해 분석대상은 위의 한국노동패널조사 5차년도 총1357가구(맞벌이 544가구, 홀벌이 813가구)와 15차년도 총3,852가구(맞벌이 2481가구, 홀벌이 1371가구)로 하였으며, 이들 중 APT에 거주하는 맞벌이와 홀벌이가구에 대한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근로소득은 KLIPS 15차년도(2012년)에 맞벌이가구는 연평균 5273만원, 홀벌이가구는 연평균 2700만원이었으며, KLIPS 5차년도(2002년)에는 맞벌이가구가 연평균 3433만원, 홀벌이가구가 연평균 2226만원으로 10년 전에 비해 맞벌이가구는 약 54%, 홀벌이가구는 약 21%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금융소득은 맞벌이가구가 2002년 연평균 105만원에서 2012년 연평균 35만원으로 67% 감소하였고, 홀벌이가구는 2002년 연평균 48만원에서 2012년 연평균 33만원으로 약 31% 감소하였다. 부동산소득은 맞벌이가구가 KLIPS 5차년도에 연평균 485만원에서 KLIPS 15차년도에 연평균 145만원으로 약 70% 감소한 반면에 홀벌이가구는 KLIPS 5차년도에 연평균 48만원에서 KLIPS 15차년도에 연평균 111만원으로 약 131% 증가율을 보였다. 맞벌이가구의 연평균 이전소득은 2002년에 95만원에서 2012년 173만원으로 약 82% 증가하였으며, 홀벌이가구의 연평균 이전소득은 2002년 113만원에서 2012년 277만원으로 약 145% 증가하였다. 이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홀벌이가구가 맞벌이가구에 비해 정부, 사회단체, 자녀에 의존하는 정도가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보험수혜액도 맞벌이가구에 비해 홀벌이가구가 더 많

2013-03, pp.1~49.

13) Benjamin, J.D., Chinloy, P.T., and Jud, G.D. "Why do Households Concentrate Their Wealth in Housing?", *Journal of Real Estate Research*, NY : CUNY. 2004, 26(4), pp.229-244.

14) Case, K. E., J. M. Quigley, and R. J. Shiller, "Comparing Wealth Effects: the Stock Market versus the Housing Market", *Advances in Macroeconomics* 5, 2005, pp.1-17.

15) Campbell, J.Y. and Cocco, J.F., "How Do House Prices Affect Consumption? Evidence From Micro Data", NBER Working Paper,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05, No.11534, pp.1-76.

16) Bostic, R., Gabriel, S and Painter, G., "Housing Wealth, Financial Wealth, and Consumption: New Evidence from Micro Data",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Elsevier. 2009, Vol. 39, No. 1, pp.79-89.

〈표 1〉 APT거주 맞벌이·홀벌이가구 연소득  
(단위: %, 만원)

소득종류	구분	통계량					
		연령대	최소값	최대값	평균 (중위수)	표준 오차	N (결측)
근로소득	맞벌이	KLIPS 5차	0	14400	3433.3 (3000.0)	88.2 (41)	503 (41)
		KLIPS 15차	240	30000	5272.9 (4800)	96.3 (87)	996 (87)
	홀벌이	KLIPS 5차	250	9600	2226.3 (2000.0)	186.3 (26)	75 (26)
		KLIPS 15차	45	7844	2701.4 (2400.0)	123.9 (85)	203 (85)
금융소득	맞벌이	KLIPS 5차	0	11100	104.8 (0.0)	26.5 (0)	544 (0)
		KLIPS 15차	0	7200	34.9	8.5	1083 (0)
	홀벌이	KLIPS 5차	0	1500	48.0 (0.0)	23.1 (0)	101 (0)
		KLIPS 15차	0	3600	32.9	15.8	288 (0)
부동산소득	맞벌이	KLIPS 5차	0	72000	484.5 (0.0)	179.1 (0)	544 (0)
		KLIPS 15차	0	30000	144.5 (0.0)	35.4 (0)	1083 (0)
	홀벌이	KLIPS 5차	0	1200	48.0 (0.0)	13.1 (0)	101 (0)
		KLIPS 15차	0	9000	110.7 (0.0)	39.9 (0)	288 (0)
이전소득	맞벌이	KLIPS 5차	0	5602	95.1 (0.00)	20.9 (0)	544 (0)
		KLIPS 15차	0	25000	173.2 (0.0)	29.4 (0)	1083 (0)
	홀벌이	KLIPS 5차	0	1202	112.8 (0.00)	21.7 (0)	101 (0)
		KLIPS 15차	0	3708	277.2 (0.0)	27.1 (0)	288 (0)
사회보험수혜액	맞벌이	KLIPS 5차	0	3110	51.7 (0.0)	14.4 (0)	544 (0)
		KLIPS 15차	0	20000	139.8 (0.0)	24.4 (0)	1083 (0)
	홀벌이	KLIPS 5차	0	840	21.2 (0.0)	10.0 (0)	101 (0)
		KLIPS 15차	0	2184	63.9 (0.0)	15.0 (0)	288 (0)

자료: 연구자가 KLIPS 5차년도와 15차년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의 〈표 2〉는 APT외 거주 맞벌이가구와 홀벌이가구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근로소득은 맞벌이가구가 KLIPS 5차년도에 2400만원이었으나 15차년도에는 3444만원으로 약 32% 증가하였고 홀벌이가구는 KLIPS 5차년도에 1560만원에서 KLIPS 15차년도에 2000만원까지 약 30% 증가하였다. 그러나 연평균 금융소득은 근로소득과 달리 맞벌이가구와 홀벌이가구 모두 KLIPS 5차년도에 비해 15차년도에 각각 44%와 71%의 감소율을

〈표 2〉 APT외 맞벌이·홀벌이가구 연소득  
(단위: %, 만원)

소득종류	구분	통계량					
		연령대	최소값	최대값	평균 (중위수)	표준 오차	N (결측)
근로소득	맞벌이	KLIPS 5차	0	20000	2618.4 (2400.0)	58.7 (78)	735 (78)
		KLIPS 15차	40	24400	3821.1 (3444.0)	91.5 (599)	799 (599)
	홀벌이	KLIPS 5차	0	12000	1802.0 (1560.0)	97.2 (66)	244 (66)
		KLIPS 15차	38	11000	2350.4 (2000.0)	73.9 (966)	432 (966)
금융소득	맞벌이	KLIPS 5차	0	3600	26.1 (0.0)	5.7 (0)	813 (0)
		KLIPS 15차	0	3060	14.5 (0.0)	4.1 (0)	1398 (0)
	홀벌이	KLIPS 5차	0	3600	25.3 (0.0)	13.2 (0)	310 (0)
		KLIPS 15차	0	450	0.72 (0.0)	0.38 (7)	1391 (7)
부동산소득	맞벌이	KLIPS 5차	0	32500	222.5 (0.0)	53.2 (0)	813 (0)
		KLIPS 15차	0	72000	210.0 (0.0)	57.3 (0)	1398 (0)
	홀벌이	KLIPS 5차	0	20000	139.8 (0.0)	70.0 (0)	310 (0)
		KLIPS 15차	0	3000	19.8 (0.0)	4.7 (7)	1391 (7)
이전소득	맞벌이	KLIPS 5차	0	7002	51.5 (0.0)	9.9 (0)	813 (0)
		KLIPS 15차	0	4100	85.6 (0.0)	8.0 (0)	1398 (0)
	홀벌이	KLIPS 5차	0	1200	62.1 (0.0)	8.8 (0)	310 (0)
		KLIPS 15차	0	12000	93.6 (0.0)	11.8 (7)	1391 (7)
사회보험수혜액	맞벌이	KLIPS 5차	0	2500	37.6 (0.0)	8.4 (0)	813 (0)
		KLIPS 15차	0	4488	83.1 (0.0)	9.5 (0)	1398 (0)
	홀벌이	KLIPS 5차	0	1200	18.5 (0.0)	6.23 (0)	310 (0)
		KLIPS 15차	0	3000	26.0 (0.0)	4.7 (7)	1391 (7)

자료: 연구자가 KLIPS 5차년도와 15차년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보였다. 그리고 부동산소득은 맞벌이가구가 2002년 222만원에서 2012년에는 210만원으로 약 5% 감소한 반면에 홀벌이가구는 2002년 140만원에서 2012년 20만원으로 약 86%로 맞벌이가구에 비해 훨씬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소득은 맞벌이가구가 2002년에 연평균 38만원에서 2012년 83만원으로 118%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에 홀벌이가구는 2002년 연평균 62만원에서 2012년 94만원으로 52%의 증가율을 보였다. 사회보험수혜액은 맞벌이가구

〈표 3〉 APT거주 맞벌이·홀벌이가구 자산구성  
(단위: %, 만원)

자산유형	연령대	최소	최대	평균 (중위수)	평균의 표준오차	N (결측)
금융자산	맞벌이	KLIPS 5차	0	82600	2901.44 (1000.00)	325.23 544 (0)
		KLIPS 15차	0	70000	2724.81 (1000.00)	167.13 1082 (1)
	홀벌이	KLIPS 5차	0	10500	1381.88 (500.00)	208.59 101 (0)
		KLIPS 15차	0	50000	1702.02 (200.00)	271.72 288 (0)
주택자산	맞벌이	KLIPS 5차	0	130000	14452.04 (12000.00)	590.012 364 (180)
		KLIPS 15차	0	250000	35167.85 (30000.00)	880.265 687 (396)
	홀벌이	KLIPS 5차	0	40000	11387.89 (10000.00)	933.49 66 (35)
		KLIPS 15차	0	100000	26707.62 (23000.00)	1373.90 135 (153)
주택외부동산자산	맞벌이	KLIPS 5차	0	78000	7694.03 (0.00)	1139.77 130 (414)
		KLIPS 15차	0	300000	40261.59 (30000.00)	3686.29 130 (953)
	홀벌이	KLIPS 5차	0	60000	7532.67 (0.00)	4063.71 86 (15)
		KLIPS 15차	5000	100000	35111.11 (27000.00)	4921.34 261 (27)
총자산	맞벌이	KLIPS 5차	0	139999	14410.21 (10700.00)	683.84 544 (0)
		KLIPS 15차	0	329900	29863.86 (25000.00)	1037.71 1083 (0)
	홀벌이	KLIPS 5차	0	79300	9942.19 (8300.00)	1142.33 101 (0)
		KLIPS 15차	0	145000	17512.89 (10000.00)	1355.28 288 (0)
순자산	맞벌이	KLIPS 5차	-25001	101000	11513.89 (8110.00)	642.77 544 (0)
		KLIPS 15차	-176000	294900	22315.07 (17100.00)	981.44 1083 (0)
	홀벌이	KLIPS 5차	-8450	79300	8517.14 (6630.00)	1090.61 101 (0)
		KLIPS 15차	-59000	130009	13954.63 (5200.00)	1230.33 288 (0)
부채	맞벌이	KLIPS 5차	0	50000	2896.31 (700.00)	248.59 544 (0)
		KLIPS 15차	0	329900	29863.86 (25000.00)	1037.71 1083 (0)
	홀벌이	KLIPS 5차	0	20000	1425.05 (0.00)	310.40 101 (0)
		KLIPS 15차	0	100000	3558.26 (0.00)	599.60 288 (0)

자료: 연구자가 KLIPS 5차년도와 15차년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가 2002년에 38만원에서 2012년 83만원으로 118%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홀벌이가구는 2002년 19만원에서 2012년 26만원으로 37%의 증가율을 보였다. 따라서 두 가구 모두 연령의 증가에 따라 사회보험수혜액도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표 4〉 APT의 맞벌이·홀벌이가구 자산구성  
(단위: %, 만원)

자산유형	연령대	최소	최대	평균 (중위수)	평균의 표준오차	N (결측)
금융자산	맞벌이	KLIPS 5차	0	40000	1529.52 (500.00)	108.14 813 (0)
		KLIPS 15차	0	55000	1165.73 (0.00)	108.48 1398 (0)
	홀벌이	KLIPS 5차	0	30144	737.41 (120.00)	130.200 310 (0)
		KLIPS 15차	0	20000	474.01 (0.00)	46.23 1083 (315)
주택자산	맞벌이	KLIPS 5차	0	150000	12751.84 (8500.00)	642.81 415 (398)
		KLIPS 15차	0	600000	37146.55 (25000.00)	2110.26 435 (963)
	홀벌이	KLIPS 5차	0	50000	10709.00 (8000.00)	949.95 110 (200)
		KLIPS 15차	0	115000	23050.41 (20000.00)	1584.23 153 (1245)
주택외부동산자산	맞벌이	KLIPS 5차	0	300000	8004.93 (0.00)	2032.47 164 (649)
		KLIPS 15차	0	700000	51459.19 (25000.00)	9397.622 102 (1297)
	홀벌이	KLIPS 5차	0	50000	6999.30 (0.00)	2635.57 31 (279)
		KLIPS 15차	0	50000	11689.66 (3500.00)	2784.04 30 (1368)
총자산	맞벌이	KLIPS 5차	0	302000	9653.54 (155.00)	619.34 1398 (0)
		KLIPS 15차	0	905000	16441.93 (155.00)	1289.46 310 (0)
	홀벌이	KLIPS 5차	0	78500	5146.99 (638.00)	574.53 1398 (0)
		KLIPS 15차	0	115000	3132.38 (0.00)	278.62 813 (0)
순자산	맞벌이	KLIPS 5차	0	60000	-2426.39 (0.00)	187.06 813 (0)
		KLIPS 15차	-149500	670920	1259.94 (0.00)	1023.38 1398 (0)
	홀벌이	KLIPS 5차	-18000	50000	3655.80 (500.00)	476.75 310 (0)
		KLIPS 15차	-40000	102800	2522.02 (0.00)	253.74 1398 (0)
부채	맞벌이	KLIPS 5차	0	60000	2720.85 (500.00)	189.93 810 (3)
		KLIPS 15차	0	700000	3845.99 (0.00)	568.93 1398 (0)
	홀벌이	KLIPS 5차	0	35000	1491.19 (0.00)	241.77 310 (0)
		KLIPS 15차	0	40000	787.89 (0.00)	93.42 1083 (315)

자료: 연구자가 KLIPS 5차년도와 15차년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한편, 분석대상 가구의 자산구성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3〉 및 〈표 4〉와 같다. 먼저, APT거주 맞벌이가구의 금융자산은 KLIPS 5차년도에 연평균 2901만원에서 15차년도에 2725원으로 약 7%의 감소율을 보인 반면에, 홀벌이가구는 KLIPS 5차년도에 연평균 1382만원에서 15차년도에 1702만원으로

약 23%의 증가율을 보였다. 주택자산은 맞벌이가구가 2002년에 연평균 14452만원에서 2012년 35168만원으로 143%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홑벌이가구도 2002년에 11388만원에서 2012년 26708만원으로 135%의 증가율을 보였다. 게다가, 주택외부동산자산도 맞벌이가구의 경우, 2002년에 연평균 7694만원에서 2012년 연평균 40262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2002년에 7533만원에서 2012년에는 35111만원으로 증가하였다. 총자산은 맞벌이가구가 2002년에 연평균 14410만원에서 2012년 29864만원으로 증가하였고 홑벌이가구도 2002년 9942만원에서 2012년 17513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값으로 맞벌이가구는 2002년에 연평균 11514만원에서 2012년 22315만원으로 2배 가량 증가한 반면에 홑벌이가구는 2002년에 연평균 8517만원에서 2012년에 13955만원으로 1.6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채는 맞벌이가구가 2002년에 연평균 2896만원에서 2012년 29864만원으로 증가하였고 홑벌이가구는 2002년 연평균 1425만원에서 2012년 3558만원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생애주기상 지출이 많은 중년기에 자가주택 마련과 자녀들의 교육비 및 혼인에 따른 주택 마련 등에 지출하는 부담이 큰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APT의 거주 맞벌이가구와 홑벌이가구의 자산구성을 살펴본다. 금융자산의 경우, 맞벌이가구는 2002년 연평균 1530만원에서 2012년 1166만원으로 24% 감소하였고, 홑벌이가구도 2002년 연평균 737만원에서 2012년 474만원으로 36%의 감소율을 보였다. 주택자산은 맞벌이가구의 경우 2002년 연평균 12752만원에서 2012년 37147만원으로 191%의 증가율을 보였다. 홑벌이가구도 2002년 연평균 10709만원에서 2012년 23050만원으로 115%의 증가율을 보였다. 주택외부동산자산은 맞벌이가구가 2002년 8005만원에서 2012년 51459만원으로 증가하였고 홑벌이가

구는 2002년 6999만원에서 11690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총자산은 맞벌이가구가 2002년에 9654만원에서 2012년 16442만원으로 증가한 것과 달리 홑벌이가구는 2002년 연평균 5147만원에서 2012년 3132만원으로 39%의 감소율을 보였다. 순자산은 맞벌이가구가 2002년에 연평균 -2426만원에서 2012년에 1260만원으로 증가한 반면, 홑벌이가구는 2002년 3655만원에서 2012년 2522만원으로 감소하였다. 부채는 맞벌이가구가 2002년에 2721만원에서 2012년에는 3846만원으로 증가하였으나 홑벌이가구는 2002년 연평균 1491만원에서 2012년에 788만원으로 예상과 달리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2. 변수의 구성

서울·경기지역의 APT와 APT외에 거주하는 맞벌이가구와 홑벌이가구의 자산효과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종속변수는 민간소비의 총지출 중 가계가 구입한 최종 생산물인 재화와 서비스로서 구입시점마다 소비지출이 이루어지고 그때마다 효용을 충족시켜주는 비내구재의 연간 소비액에 로그변환 값으로 하였다.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인 비내구재 소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맞벌이 및 홑벌이가구의 일반적 특성인 가구원수, 학력수준, 가구주의 연령 등과 가계 자산과 관련된 변수인 총자산, 금융자산, 주택자산, 주택외 부동산자산, 순자산 변수들에 대해 로그 변환한 값으로 하였다. 비내구재 소비액 항목은 한국노동패널조사에 제시된 내구재를 제외한 식비, 외식비, 차량유지비, 교양오락비, 피복비 등이다.

## 3. 자산효과의 분석모형과 분석결과

맞벌이가구와 홑벌이가구의 자산효과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로그선형 회귀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맞벌이가구와 홑벌이가구의 연령대별, 주택종류별 10년 전·후의 자산효

과 차이를 추정하였다.

1) 분석모형

맞벌이와 홀벌이가구의 자산효과 변동 추이를 실증분석하기 위한 소비함수식은 다음과 같으며, Campbell and Cocco(2007) 모형에 기초하여 설정하였다.

$$\Delta C_{i,t} = \beta_0 + \beta_1 a_{i,t} + \epsilon_{i,t}$$

$$\Delta C_{i,t} = \beta_0 + \beta_2 \Delta f_{i,t} + \epsilon_{i,t}$$

$$\Delta C_{i,t} = \beta_0 + \beta_3 \Delta hw_{i,t} + \epsilon_{i,t}$$

$$\Delta C_{i,t} = \beta_0 + \beta_4 \Delta eh_{i,t} + \epsilon_{i,t}$$

$$\Delta C_{i,t} = \beta_0 + \beta_5 \Delta nw_{i,t} + \epsilon_{i,t}$$

여기서,  $\Delta C_{i,t} = \ln C_{i,t} - \ln C_{i,t-1}$

: 로그화된 가구 소비 변화

$a_{i,t} = \ln T_{i,t}$ : 로그화된 총자산

$\Delta f_{i,t} = \ln F_{i,t} - \ln F_{i,t-1}$

: 로그화된 금융자산 변화

$$\Delta hw_{i,t} = \ln HW_{i,t} - \ln HW_{i,t-1}$$

: 로그화된 주택자산 변화

$$\Delta eh_{i,t} = \ln EH_{i,t} - \ln EH_{i,t-1}$$

: 로그화된 주택외부동산자산 변화

$$\Delta nw_{i,t} = \ln NW_{i,t} - \ln NW_{i,t-1}$$

$\epsilon_{i,t}$ : 오차항

을 각각 나타낸다.

2) 실증분석의 결과 및 해석

APT와 APT의 거주 맞벌이 가구 및 홀벌이 가구의 비내구재 소비에 대한 자산효과 변동 분석의 추정치는 <표 5>에서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다.

먼저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 맞벌이가구와 홀벌이가구의 KLIPS 5차년도(2002)와 15차년도(2012) 전체의 연령대별 총자산에 대한 소비탄력성의 변화는 <표 5>의 5-1열과 같다. 소비함수 추정 모형의 총자산에 대한 소비탄력성은 2002년에 0.050이었고 2012년에는 0.072로 총자산이 1% 증가할 경

<표 5> 총자산에 관한 소비탄력성 모형

구분	연령대		주택종류								
	KLIPS 5차		APT				APT의				
	전체	전체	KLIPS 5차		KLIPS 15차		KLIPS 5차		KLIPS 15차		
			맞벌이	홀벌이	맞벌이	홀벌이	맞벌이	홀벌이	맞벌이	홀벌이	
5-1		5-2				5-3					
ln(소비)		ln(소비)		ln(소비)		ln(소비)		ln(소비)		ln(소비)	
ln(총자산)	0.050 (13.239)***	0.072 (16.601)***	0.055 (7.066)***	0.061 (3.519)***	0.048 (8.457)***	0.060 (4.567)***	0.038 (8.099)***	0.044 (4.389)***	0.038 (7.856)***	0.041 (4.142)***	
가구원수	0.257 (23.911)***	0.329 (29.986)***	0.205 (8.673)***	0.222 (4.360)***	0.307 (14.330)***	0.371 (6.283)***	0.270 (16.941)***	0.233 (8.080)***	0.294 (15.390)***	0.330 (7.354)***	
학력수준	-0.015 (0.733)	-0.052 (2.472)**	0.017 (0.424)	-0.121 (0.828)	-0.029 (0.897)	-0.215 (3.182)***	-0.007 (0.280)	-0.056 (1.128)	-0.019 (0.627)	-0.049 (0.957)	
가구주 연령	0.009 (9.028)***	-0.007 (8.052)***	-0.005 (2.915)***	-0.017 (4.386)***	-0.002 (1.026)	-0.005 (1.638)	-0.006 (4.913)***	-0.013 (5.540)***	-0.005 (3.625)***	-0.003 (1.439)	
상수	4.729 (69.131)	3.801 (56.536)***	4.075 (27.584)***	4.536 (14.796)***	4.091 (31.921)***	4.170 (18.684)***	3.876 (38.460)***	4.273 (31.547)***	4.264 (36.667)***	4.071 (29.157)***	
R <sup>2</sup> <sub>adj</sub>	0.41	0.39	0.23	0.45	0.24	0.29	0.35	0.32	0.27	0.16	
N	1533	2557	536	76	1052	209	782	239	865	441	

주:1) \*는 90% 신뢰수준, \*\*는 95% 신뢰수준, \*\*\*는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2) 괄호는 t값의 절대값을 의미함.

〈표 6〉 자산유형별 소비탄력성 모형

구분	연령대		주택종류							
	KLIPS 5차	KLIPS15차	APT				APT외			
	전체	전체	KLIPS 5차		KLIPS 15차		KLIPS 5차		KLIPS 15차	
			맞벌이	홀벌이	맞벌이	홀벌이	맞벌이	홀벌이	맞벌이	홀벌이
	6-1		6-2				6-3			
ln(소비)	ln(소비)	ln(소비)	ln(소비)	ln(소비)	ln(소비)	ln(소비)	ln(소비)	ln(소비)	ln(소비)	
ln	0.037	0.043	0.040	0.047	0.032	0.051	0.027	0.058	0.030	0.051
(금융자산)	(9.969)***	(11.609)***	(6.571)***	(2.794)***	(6.141)***	(3.417)***	(5.672)***	(5.510)***	(5.776)***	(4.552)***
ln	0.020	0.021	0.011	0.026	0.017	0.022	0.018	0.016	0.018	0.008
(주택자산)	(7.368)***	(7.490)***	(2.454)***	(1.902)*	(4.409)***	(1.877)*	(4.944)***	(1.797)*	(4.554)***	(0.751)
ln(주택외 부동산자산)	0.023	0.026	0.023	0.009	0.023	0.030	0.023	0.048	0.023	0.015
	(4.725)***	(6.083)***	(3.216)***	(0.362)	(4.172)***	(1.578)	(3.620)***	(1.775)*	(4.126)***	(0.604)
가구원수	0.254	0.345	0.213	0.225	0.307	0.389	0.263	0.227	0.291	0.345
	(23.566)***	(31.393)***	(9.077)***	(4.353)***	(14.285)***	(6.412)***	(16.587)***	(7.778)***	(15.438)***	(7.497)***
학력수준	-0.023	-0.051	0.010	-0.174	-0.032	-0.204	-0.014	-0.065	-0.009	-0.036
	(1.187)	(2.407)**	(0.249)	(1.162)	(0.980)	(2.999)***	(0.571)	(1.346)	(0.288)	(0.698)
가구주 연령	-0.009	-0.006	-0.004	-0.017	-0.002	-0.004	-0.007	-0.013	-0.005	-0.002
	(8.611)***	(6.518)***	(2.285)***	(4.212)***	(0.997)	(1.105)	(4.868)***	(5.330)***	(3.473)***	(0.693)
상수	4.810	3.946	4.149	4.697	4.191	4.138	3.956	4.249	4.297	3.950
	(69.157)***	(57.405)***	(28.877)***	(14.947)***	(32.784)***	(17.258)***	(38.556)***	(30.893)***	(36.382)***	(25.564)***
R <sup>2</sup> <sub>adj</sub>	0.41	0.39	0.24	0.44	0.23	0.28	0.36	0.37	0.29	0.16
N	1533	2557	536	76	1051	209	782	239	865	441

주:1) \*는 90% 신뢰수준, \*\*는 95% 신뢰수준, \*\*\*는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2) 괄호는 t값의 절대값을 의미함.

우 소비는 각각 0.05%와 0.072%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최요섭·김은영(2007)<sup>17)</sup>의 연구결과인 총자산의 소비탄력성 0.33보다는 다소 높다. 주택종류별 총자산에 대한 APT와 APT외 거주자의 연령 대별 소비탄력성은 <표 5>의 5-2열 및 5-3열과 같다. 먼저, 총자산에 대한 소비탄력성은 APT거주 맞벌이가구가 2002년 0.055에서 2012년 0.048로, 홀벌이가구의 총자산에 대한 소비탄력성은 0.061에서 0.060으로 작아졌다.

APT에 거주하는 KLIPS 5차년도와 15차년도의 맞벌이가구는 학력수준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99%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홀벌이가구는 이와 달리 KLIPS 5차년도에서는 학력수준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KLIPS 15차년도에는 가구주연령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APT외에 거주하는 맞벌이가구의 소비탄력성은 KLIPS 5차년도와 KLIPS 15차년도 모두 0.038로 변화가 없었으며, 학력수준을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홀벌이가구는 KLIPS 5차년도의 0.044에서 KLIPS 15차년도의 0.041로 작아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총자산에 대한 소비탄력성도 KLIPS 5차년도에는 학력수준을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KLIPS 15차년도에는 학력수준과 가구주연령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99%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음의 <표 6>은 KLIPS 5차년도와 15차년도의 맞벌이가구와 홀벌이가구의 보유 자산별 연령대와 주택종류에 따른 소비탄력성의 분석결과이다. 이러한 구분은 Lettau and Ludvigson(2004)<sup>18)</sup>의 연구에서 자산은 종류에 따라 유동성이 다르다고 제시한 점을 참고한 것이다. 먼저, 자산의 종류에 따른 연령대별 전

17) 최요섭·김은영, 전게서, pp.23-53.

체 소비탄력성은 <표 6>의 6-1열과 같다. KLIPS 5차년도의 금융자산에 대한 소비탄력성은 0.037이었으나, KLIPS 15차년도에는 0.043으로 커졌다.

주택종류별 맞벌이가구와 홀벌이가구의 소유 자산별 소비탄력성의 결과는 <표 6>의 6-2열 및 6-3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APT에 거주하는 KLIPS 5차년도의 맞벌이가구는 학력수준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서 유의수준 1%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KLIPS 15차년도에는 학력수준과 가구주 연령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각각 0.24와 0.23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금융자산의 소비탄력성은 KIIPS 15차년도에 0.032로 10년 전의 0.040보다 더 작아진 반면에 주택자산의 소비탄력성은 2002년 0.011에서 2012년 0.017로 더 커짐에 따라 금융자산과는 반대 현상을 보였다. 주택외부동산 자산은 예상과 달리 2002년과 2012년 모두 0.023의 소비탄력성을 보였다.

한편, 홀벌이가구의 경우는 맞벌이가구와 달리 KLIPS 5차년도에는 주택자산이 유의수준 10%에서 유의하였고 주택외부동산자산은 유의수준 1%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KLIPS 15차년도에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각각 0.44와 0.28로 나타났다.

금융자산과 주택외부동산자산의 소비탄력성은 KLIPS 5차년도에 각각 0.047과 0.009임에 비해 15차년도에는 0.051과 0.030으로 더 커졌다. 그러나 주택자산은 0.026에서 0.022로 더 작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홀벌이가구의 경우, 금융자산과 주택자산은 신뢰수준 90%에서 유의하였으나, 주택외부동산자산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APT외에 거주하는 KLIPS 5차년도와 KLIPS 15차년도의 맞벌이가구와 홀벌이

가구의 자산유형별 소비탄력성에 관한 분석결과이다. 맞벌이가구는 KLIPS 5차년도와 KLIPS 15차년도 모두 학력수준을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유의수준 1%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각각 36%와 29%인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가구의 경우, 금융자산에 대한 소비탄력성은 2002년에 0.027에서 2012년 0.030으로 더 커진 반면에 주택자산은 시간의 변화와 무관하게 모두 0.018이었고 주택외부동산자산도 0.023으로 변화가 없었다. 그리고 홀벌이가구는 KLIPS 5차년도에는 학력수준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유의수준 1%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KLIPS 15차년도에서는 주택자산과 가구원 수만 유의수준 1%내에서 유의하였다. 금융자산에 대한 소비탄력성은 2002년 0.058에서 2012년 0.051로, 주택자산은 2002년 0.016에서 2012년 0.008로, 그리고 주택외부동산자산의 소비탄력성은 2002년 0.048에서 2012년 0.015로 작아졌다.

다음의 <표 7>에서는 순자산, 즉 총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에 대한 소비탄력성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가구의 순자산에 대한 소비탄력성은 KLIPS 5차년도에 0.032에서 KLIPS 15차년도에 0.041로 커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택종류별 순자산에 대한 소비탄력성은 <표 7>의 7-2열 및 7-3열에 나타난 바와 같다. 먼저, APT에 거주하는 맞벌이가구의 순자산에 대한 소비탄력성은 KLIPS 5차년도에 0.025에서 15차년도에는 0.036으로 커졌다. KLIPS 5차년도에는 학력수준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99%신뢰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은 18%로 나타났다.

한편, APT외에 거주하는 맞벌이가구의 KLIPS 5차년도의 소비탄력성은 0.004이었으나, 10년 후에는 0.030로 커진 것으로 분석되었

18) Lettau, M. and Ludvigson, S. C.. "Understanding Trend and Cycle in Asset Values : Reevaluating the Wealth Effect on Consump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TN :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2004, vol.94, no.1, pp.276-299.

〈표 7〉 순자산에 관한 소비탄력성 모형

구분	연령대		주택종류							
	KLIPS 5차		APT				APT외			
	전체	전체	KLIPS 5차		KLIPS 15차		KLIPS 5차		KLIPS 15차	
			맞벌이	홀벌이	맞벌이	홀벌이	맞벌이	홀벌이	맞벌이	홀벌이
	7-1	7-2				7-3				
	ln(소비)									
ln (순자산)	0.032 (9.820)***	0.041 (12.632)***	0.025 (4.262)***	0.043 (2.455)**	0.036 (7.395)***	0.048 (3.719)***	0.004 (0.220)	0.029 (3.043)***	0.030 (6.726)***	0.028 (2.835)***
가구원수	0.273 (25.137)***	0.357 (32.653)***	0.211 (8.702)***	0.239 (4.557)***	0.309 (14.336)***	0.394 (6.631)***	0.284 (17.184)***	0.248 (8.553)***	0.296 (15.339)***	0.342 (7.547)***
학력수준	-0.022 (1.099)	-0.054 (2.511)**	0.012 (0.296)	-0.106 (0.694)	-0.027 (0.829)	-0.209 (3.048)***	-0.021 (0.835)	-0.062 (1.233)***	-0.021 (0.693)	-0.046 (0.881)
가구주 연령	-0.009 (8.618)***	-0.007 (7.214)***	-0.005 (2.866)***	-0.017 (4.099)***	-0.002 (1.113)	-0.005 (1.642)	-0.004 (3.194)***	-0.013 (5.385)***	-0.005 (3.551)***	-0.003 (1.380)
상수	4.837 (70.117)***	3.997 (60.135)***	4.329 (29.921)***	4.614 (14.522)***	4.220 (33.413)***	4.242 (18.849)***	3.995 (38.327)***	4.350 (32.018)***	4.343 (37.419)***	4.131 (29.533)***
R <sup>2</sup> <sub>adj</sub>	0.38	0.36	0.18	0.40	0.22	0.26	0.29	0.30	0.26	0.14
N	1533	2557	535	76	1052	209	782	239	865	441

주:1) \*는 90% 신뢰수준, \*\*는 95% 신뢰수준, \*\*\*는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2) 괄호는 t값의 절대값을 의미함.

다. 그러나 홀벌이가구의 순자산에 대한 소비탄력성은 KLIPS 5차년도에 0.029에서 15차년도에 0.028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이와 같이 APT외에 거주하는 맞벌이가구가 APT에 거주하는 맞벌이가구보다 순자산의 증가에 따른 소비탄력성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하였지만, 홀벌이가구는 APT거주자가 APT외 거주자에 비해 연령의 증가에 따른 소비탄력성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점은 APT거주자와 APT외 거주자 구분없이 맞벌이가구가 홀벌이가구에 비해 순자산의 증가에 따른 소비탄력성의 변화폭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IV. 결론

우리나라의 산업 발달과정은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빠르게 진행되어왔다. 특히, 의료기술의 발달과 식습관의 개선은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켰고 산업의 발달은 여러 분야의 시스템을 자동화하여 비용 절감을 가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우리 경제는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와 글로벌금융위기 등의 악재를 겪으면서 경기둔화의 악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맞벌이가구의 상대적 증가를 가져옴에 따라 이들 맞벌이가구가 홀벌이가구에 비해 자산별 소비탄력성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비교 분석해 보았으며, 그 결과를 요약한 것이 〈표 8〉이다. 먼저, 총자산에 대한 전체가구의 소비탄력성은 KLIPS 5차년도에 비해 15차년도에 더 컸다. 그리고 주택종류별 총자산에 대한 소비탄력성은 APT거주 맞벌이가구의 경우, 연령이 많아질수록 더 커졌으나, APT거주 홀벌이가구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APT외 거주 맞벌이가구의 총자산에 대한 소비탄력성도 차이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APT외 거주 홀벌이가구의 소비탄력성은 연령이 많아질수록 더 작았다.

둘째, 연령대별 전체가구에 대한 자산종류별 소비탄력성에서 금융자산은 2002년보다 2012년에 더 커졌고 주택자산은 10년 전후에 거의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주택외 부동산자산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커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주택자산이 금융자산이나 주택외부동산자산보다 탄력성이 크다는 이항용(2004),

〈표 8〉 모형분석 결과 종합 요약

구분	연령대		주택종류							
	KLIPS 5차	KLIPS 15차	APT				APT외			
	전체	전체	KLIPS 5차		KLIPS 15차		KLIPS 5차		KLIPS 15차	
			맞벌이	홀벌이	맞벌이	홀벌이	맞벌이	홀벌이	맞벌이	홀벌이
ln(소비)	ln(소비)	ln(소비)	ln(소비)	ln(소비)	ln(소비)	ln(소비)	ln(소비)	ln(소비)	ln(소비)	
ln(총자산)	0.050 (13.239)**	0.072 (16.601)***	0.055 (7.066)***	0.061 (3.519)***	0.048 (8.457)***	0.060 (4.567)***	0.038 (8.099)***	0.044 (4.389)***	0.038 (7.856)***	0.041 (4.142)***
ln(금융자산)	0.037 (9.969)***	0.043 (11.609)***	0.040 (6.571)***	0.047 (2.794)***	0.032 (6.141)***	0.051 (3.417)***	0.027 (5.672)***	0.058 (5.510)***	0.030 (5.776)***	0.051 (4.552)***
ln(주택자산)	0.020 (7.368)***	0.021 (7.490)***	0.011 (2.454)***	0.026 (1.902)*	0.017 (4.409)***	0.022 (1.877)*	0.018 (4.944)***	0.016 (1.797)*	0.018 (4.554)***	0.008 (0.751)
ln(주택외 부동산자산)	0.023 (4.725)***	0.026 (6.083)***	0.023 (3.216)***	0.009 (0.362)	0.023 (4.172)***	0.030 (1.578)	0.023 (3.620)***	0.048 (1.775)*	0.023 (4.126)***	0.015 (0.604)
ln(순자산)	0.032 (9.820)***	0.041 (12.632)***	0.025 (4.262)***	0.043 (2.455)**	0.036 (7.395)***	0.048 (3.719)***	0.004 (0.220)	0.029 (3.043)***	0.030 (6.726)***	0.028 (2.835)***

Benjamin et al(2004)<sup>19)</sup>, Bostic et al(2009)<sup>20)</sup>의 연구와 상반된다.

자산종류별 소비탄력성을 주택종류에 따라 살펴본 결과, APT거주 맞벌이가구의 금융자산은 2002년에 비해 2012년에 더 작았으나 주택자산은 2002년에 비해 2012년에 더 커졌다. 한편, APT거주 홀벌이가구의 소비탄력성은 금융자산의 경우, 2002년에 비해 2012년에 더 커졌으나 주택자산은 반대였다. 주택외부동산자산은 2002년에 비해 2012년엔 3배 이상 커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APT외 거주 맞벌이가구의 자산종류별 소비탄력성을 보면, 금융자산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커졌으나, 주택자산과 주택외부동산자산은 10년 전후에 변화가 없었다. APT외 거주 홀벌이가구의 금융자산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더 작아졌다. 주택자산과 주택외부동산자산의 소비탄력성도 작아졌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순자산에 대한 연령대별 총자산에 대한 전체의 소비탄력성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더 커졌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택종류별 순자산에 대한 소비탄력성은

APT에 거주하는 맞벌이가구가 2002년에 비해 2012년에 더 커졌으며, 홀벌이가구도 10년 후에 더 커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APT외 거주 맞벌이가구의 순자산에 대한 소비탄력성은 과거 10년 전에 비해 더 커졌으나, 홀벌이가구의 순자산에 대한 소비탄력성은 10년 전후에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PT거주 맞벌이가구의 경우, 연령이 많아질수록 금융자산의 소비탄력성은 작아진 반면에 주택자산의 소비탄력성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난 점이 특징적이었다. 그러나 홀벌이가구의 경우는 연령이 많아질수록 금융자산의 소비탄력성은 커진 반면에 주택자산의 소비탄력성은 더 작아졌다. 이것으로 보아 아파트에 거주하는 맞벌이가구는 노후를 대비하여 보다 안정적인 실물자산인 부동산에 투자하여 가치상승에 따른 소비를 늘리는 반면에 홀벌이가구는 금융자산의 축적에 비중을 둔 결과로 보인다.

한편, APT외 거주 맞벌이가구는 연령이 들어갈수록 금융자산의 소비탄력성은 커진 반면에 주택자산과 주택외부동산자산은 변함이 없었다. 홀벌이가구는 연령이 들어갈수록 금융자산, 주택자산, 주택외부동산자산 모두의 소비탄력성은

19) Benjamin, J.D., Chinloy, P. and Jud, G.D., op. cit., pp.229-343.

20) Bostic, R., Gabriel, S. and Painter, G., op. cit., 2009, pp.79-89.

10년 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APT에 비해 APT의 주택은 일반적으로 가치 상승분이 크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맞벌이가구에 대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자산과 주택외부동산자산의 소비탄력성을 크게 할 수 있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에 대해 장기저율의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Friedmand이 주장한 항상소득의 효과에 따른 소비의 증가를 가져오게 하는 것도 자산보유 가구와 국민경제 모두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홀벌이가구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가계자산의 포트폴리오에서 금융자산의 보유 비중을 늘리면서 다계층채권(CMO)구조의 연금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노후에도 소득감소가 보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상기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하여 현실에 있어서는 연령이 많아질수록 소비탄력성이 작아진 APT거주자의 주택자산, APT외 거주자의 금융자산과 주택자산, 주택외부동산자산, 순자산에 대해서 주택종류별 가구주들은 젊었을 때부터 이들 각 자산의 축적에 비중을 두어 노후를 준비하고 지자체는 취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에, 국가는 양도소득세 등 국세에 대한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이 거주 가구별로 차등 적용될 수 있는 세율 구조와 합리적 적용이 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KLIPS 15차년도 현재 APT와 APT외 거주 맞벌이가구와 홀벌이가구의 10년 전인 KLIPS 5차년도에 비해 자산효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본 연구의 몇 가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첫째, 분석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주택종류별 맞벌이가구와 홀벌이가구의 자산효과 차이를 분석하고 해당 지역에 맞는 항상소득 유지 방안을 모색한다. 둘째, 맞벌이가구와 홀벌이가구가 안고 있는 부채의 정도에 따른 소비탄력성의 차이를 분석하여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저금리 장기대출이나 과세의 공제 범위 확대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맞벌이가구와 홀벌이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 종류별 소비탄력성의 변화를 내구재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비내구재와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는지 비교한 후 적용 가능한 가구별 맞춤형 항상소득 지속방안 마련과 자산효과와의 진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넷째, KLIPS 5차년도와 KLIPS 15차년도, 즉 10년간의 차이는 알 수 있지만, 그 변화 추세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시계열분석이 요구된다.

參考文獻

국토교통부, 2014년도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 패널조사, 국토교통통계누리 <http://korealand.tistory.com/5008>  
 김경환·김종석, 맨큐의 경제학, 교보문고, 2002,  
 김미형,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의 소비효과”, 한국경영교육학회, 경영교육논총, 2008, 제51집.  
 김봉호·홍성인, 경제학원론, 청목출판사, 2008,  
 김용선 · 송명규, “주택시장 경기변동과 주거특성들의 아파트가격에 대한 영향력 변화”,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4, 제58집.  
 서승환, 한국부동산시장의 거시계량분석, 홍문사, 1994.  
 이중희, 주택경제론, 박영사, 2004.  
 이진성·김현숙, “지역별 주택가격 변동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규명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3, 제55집.  
 이진성 · 이창현, “주택가격 변동률을 중심으로 한 불안정 주택시장 주택가격지수 결정요인 분석”,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4, 제59집.

- 이항용, “주택가격 변동과 부의 효과”, 금융경제연구, 한국은행, 2004, 제181호.
- 정성훈·박근우·실물옵션을 통한 부동산의 최적 투자시점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4, 제57집.
- 정은주·이기우, “주택시장 최소유동성 유지를 위한 거래량 산정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4, 제56집.
- 최요철·김은영, “가계소비의 자산효과 분석과 시사점”,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 2007, 10월호.
- 최은영, “주택의 자산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시계열과 횡단면분석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 허문중·조정환, “주택가격 변동의 소비에 대한 자산효과 추정 및 시사점”, 금융경제분석 경제연구, 우리금융경영연구소, 2013, WFRI 2013-03.
- Benjamin, J.D., Chinloy, P. and Jud, G.D., “Why Do Households Concentrate Their Wealth in Housing?”, *The Journal of Real Estate Research*, 2004, Springer, Vol. 26, No. 4.
- Bostic, R., Gabriel, S and Painter, G.. “Housing Wealth, Financial Wealth, and Consumption: New Evidence from Micro Data”,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Elsevier. 2009, Vol. 39, No. 1.
- Campbell, J.Y. and Cocco, J.F., “How Do House Prices Affect Consumption? Evidence From Micro Data”, NBER Working Paper,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05, No.11534.
- Case, K. E., J. M. Quigley, and R. J. Shiller, “Comparing Wealth Effects: the Stock Market versus the Housing Market”, *Advances in Macroeconomics*, 2005, 5.
- Lettau, M. and Ludvigson, S. C.. “Understanding Trend and Cycle in Asset Values : Reevaluating the Wealth Effect on Consump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TN :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2004, vol.94, no.1.
- William A, Mceachern., *ECONOMICS*, A Contemporary Introduction, South Western Publishing, 1988.